

# 수능, 6년만에 '공통과목' U턴...1등급 10%로 확대

### 국어·수학 공통과목 출제...수학 '미적Ⅱ·기하' 국교위 통해 의견 수렴 탐구영역 '통합사회·통합과학' 함께 응시...EBS 연계율 등 현행 유지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중고 선택과목이 있었던 탐구영역 역시 1999학년도 이후 거의 30년 만에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함께 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수학영역의 경우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하는 '심화수학'을 절대평가 방식의 선택과목으로 두는 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국어·수학, 공통과목 체제...심화수학 포함 '미적'·'기하' 10일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에서 과목 선택의 유연성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 시행과 함께 도입됐던 국어·수학의 '공통+선택과목' 체제는 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간다.

현재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인 독서·문학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가 출제되는데, 선택과목은 수험생이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가운데 1개를 택하는 식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생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출제범위로 하는 공통 문항을 풀게 된다.

수학 역시 현재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가 출제된다.

선택과목은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확률과 통계'와 자연·이공·의학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택하는 '미적분', '기하' 등 3개 과목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수학영역이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공통으로 출제된다.

다만, 교육부는 '미적분Ⅱ+기하'를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교 단계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고 그 수학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요구 때문이다.

◇내신 5등급제... 상위 10%까지 1등급=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부터 고교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각각 5단계로 이뤄진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등

급으로 표기된다. 5등급제에서 1등급 범위는 성적 상위 10%로, 현행 9등급제 기준 1등급(상위 4%)보다 확대된다. 2등급 이상은 현행 상위 11%에서 34%까지로, 3등급 이상은 23%에서 66%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행 9등급 체제가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등급제를 손질했다.

급제를 완화하는 데는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도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선 극히 일부만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1등급이 아예 없다. 전국 고교의 약 40%는 학년당 학생 수가 200명이 되지 못했다.

◇'사회·과학' 통합응시...EBS연계는 현행대로=탐구영역 역시 공통과목 체제로 바뀌고, 모든 학생이 '사회·과학'에 함께 응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등 17과목에

서 최대 2과목을 택해서 치렀는데, 앞으로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을 공통으로 치른다.

현행 수능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주로 사회 2과목, 자연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과학 2과목을 택해 치렀다.

직업탐구 역시 '성공적인 직업생활' 교과에서 공통으로 출제된다.

이 밖에 한국어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된다. 영어영역과 한국어영역,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나머지는 표준점수와 상대평가 9등급이 제공된다.

EBS 연계는 현행처럼 50% 간접연계 방식을 유지하되,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EBS 강의·교재에서 수능 문항 출제에 활용하는 도표·지문·사진 등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계 체감도를 강화한다.

/윤영제 기자 penfoot@kwangju.co.kr

텔아비브 거주 황유리씨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

## “방공호 들어가 공포에 떨었다”

교민들 집 밖으로 못 나가 크고 작은 분쟁 있었지만 사상자 이렇게 많기는 처음 이번 사태는 전쟁 아닌 테러

유대 안식일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교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과 현지인들은 후시 모를 테러 위협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13년째 거주하고 있는 황유리(여·44)씨는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7일 폭격소식을 듣고 방공호에 들어가 공포에 떠는가 하면 전쟁 발발 나흘째인 지금까지도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텔아비브는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둘 정도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제도시 중 하나이며 전쟁의 격전지인 가자지구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조차도 불안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씨는 지난 2010년 한국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 결혼 직후부터 텔아비브에 거주해왔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을 현지에서 2012년, 2014년, 2021년 등 계속 겪어왔지만 이렇게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공포에 몰든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의 지인이 예비군으로 모두 징집돼 국내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크고 작은 분쟁은 늘 있었지만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서 두렵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전쟁이 아닌 테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자 규모로 보면 전쟁이 맞겠지만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이번 분쟁은 국가전이 아닌 국내 테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900여명 이상이 사망하고 2400여명이 다쳤다. 또 150여명의 인질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보건부 측은 이날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704명이 숨지고 372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0일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 태평보 인근에서 하천수가 넘쳐 흘러 산책로가 물에 잠겨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준공 앞둔 광주천 태평보, 물에 잠긴 산책로

### 시험가동 중 콘크리트 틈 사이로 하천수 유입...보강공사키로

광주시가 광주천에 설치한 태평보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 보강공사를 해야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낮 12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양동 태평보 일대는 광주천 하천수가 넘쳐 흘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일부가 잠겨 있었다.

태평보 일대에 석축을 설치하고 물막이 용도로 콘크리트 벽을 세워줬는데, 이 콘크리트 벽과 산책로 사이 틈에서 하천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넘쳐 흐른 하천수에 흙이 쓸려나가 콘크리트 벽과 지면 간 줄잡아 5cm 길이의 빈 공간이 생기기도 했다.

시민들은 산책로가 잠겨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해 가거나, 무심코 젖은 길을 걸었다가 신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기도 했다.

시공사와 광주시 관계자 등은 “이달 말 태평보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해보니 예상치 못하게 하천수가 새어나왔다”고 밝혔다.

태평보는 광주시가 '광주천 환경정비 2단계' 사업 과정에서 설치했다. 광주천 전 구간 19.5km 구간을 재정비하고 태평보를 가동보로 재가설하기 위해 공사비 총 36억 2400만원을 투입했다. 지난 2021년 4

월부터 공사를 시작,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었다.

광주천 관리주체인 광주환경공단과 광주시, 시공사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태평보를 시험가동하고 3시간여만에 최대 수심인 1.8m를 가득 채웠다. 물이 흘러넘쳤다고 설명했다.

현장소장은 “광주천 인근 하천부지는 저지대로, 보를 가득 채우면 하천 수위보다 지대가 낮아져 물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및 감리 측은 태평보 인근에 옹벽을 추가로 쌓고 석축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넣는 등 방법으로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공 예정일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영제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